

# 민족대단결에로 부르는 불멸의 지침

2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심대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시라》를 발표하신 3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 로작은 온 겨레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 고귀한 지침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우리는 조국통일도 남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것도 외세이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막아놓은 것도 외세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남의 힘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민족의 대단결이야말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

고려민족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넋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할수 있는 사상정신적 기초를 밝혀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민족의 분열을 가슴아파하고있으며 나라가 하루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있다. 이것은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심장속에는 고려민족의 피가 흐르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고려민족의 넋을 지니고있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새겨주고있다.

누구나 조국통일위업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여기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와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맥박치고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조국통일은 이룩되게 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여.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 본사기자 박철남



##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백두에서 하나까지 한지맥으로 이어진 이 땅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 장장 70여년 세월! 우리 겨레는 이 기간 세월 어느 하루도 통일된 강산에서 다같이 함께 살 그날을 그려보지 않은적이 없었다. 통일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족의 최대소원이다. 겨레가 간절히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해방직후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았을것이고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세력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 된다. 그리고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깃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민족수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겨레가 뼈아프게 체험한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자주의 정책이 철저히 구현되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이 확고히 보장되고 민족의 위용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있다. 그러나 외세가 강점한 남조선에서는 어떠한가.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권리가 외세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이러한 외세에 의존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것

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 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또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은 70여년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의 결과이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동족을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책동들이 계속 감행되고있다. 민족분열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내부에서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으로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서로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결코 한민족 내부에서 서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나라의 절반방인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한,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을 피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는한 조국통일투쟁의 앞길에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것이다.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정립

1990년대중엽에 들어와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은 더욱 높아갔으며 이러한 환경은 조국통일운동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주제 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대한 역사적인 현시시찰을 진행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진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 앞에서 오래도록 정음을 읊기 못하시며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기울여오신 수많은 낮과 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 방안과 제안들을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시였으며 그것을 해마다 보고와 연설, 담화를 통하여 천명하시였는데

그 수는 수백권에 달할것이라고.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헌칙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이라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 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52돐에 즈음하여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시라》에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총괄하시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

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헌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 3대헌장이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된 조국통일의 구체적리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로정이다. 또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으로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 평화와 통일은 민족자주문제 - 남조선진보운동단체들 《평화통일요구안》 공개 -

얼마전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 《남과 북의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남북공동선언체승실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것을 요구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공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각 단체의 대표자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분별과 전쟁극복,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오늘의 상황은 《철망의 시간》으로서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였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족자주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 《남과 북의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남북공동선언체승실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것을 요구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공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이 《평화통일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은 즉시 그들의 입장을 공개할것이며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이 확립되지 못한 선거후보를 사퇴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홍범식

안재홍선생은 늦게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1956년 7월 재북인사들과 함께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통협)를 결성하였다.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자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나갔다. 이 나날 선생은 또다시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려는 열망을 지니었다. 주제46(195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선생을 친히 만나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선생의 건강에 대해 따듯이 물어주시며 나라안팎의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을 뵈다가이 모시기 전 안재홍 선생은 하나의 자연경치를 두고도 분별의 비극을 통감하시는 그이를 우리처럼

《위대하시고 또 위대하신분》, 《동서고금에 걸줄이 없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칭송하면서 어학자로서 더 훌륭한 표현을 찾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하였다.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밤늦도록 펜을 달리고 때로는 마이크앞에서 서서 남녘형제들과 동료들을 목청껏 찾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고무해 주었다.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서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들의 투쟁에 커다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민족적인것이 깃밟히고 도외시되고있는 남조선과는 달리 그 어디서나 민족의 참신한 기상이 나뉘치고 민족적인것이 존중되고있으며 자기 민족과 인민의 리익이 우위에 놓여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선생으로 하여금 진정한 애국자가 어떤것인가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하였다. 하여 선생은 자기의 생이 통일성업에 적으나마 보람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전환과정을 담은 견문록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견문록의 마감에서 선생은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최대의 숙원임을 절절히 강

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후에 《안재홍유고집》으로 출판된 글은 겨레의 통일애국의 넋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생의 심혈이 글줄마다 깃들것이었다. 안재홍선생은 1965년 3월에 생을 마쳤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선생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잘 치르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총력기간에 예

마쳤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결성 25돐을 맞는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와 그 회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에서 안재홍선생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귀중한 공적을 남기고 애국지사로서의 훌륭한 생애를 마쳤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이렇게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안재홍선생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안재홍선생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몸을 강그리 불태우며 후세에 남긴 당부로서 이 글을 마감한다.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되 통일문제는 반드시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평화통일! 이것은 조국통일달성을 위한 확고부동한 유일의 방안이다.》 본사기자



## 통일을 불러

### 한 애국지사의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3)



안재홍선생 애국지사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 1891년 11월 30일생 1965년 3월 1일사